

사상의학의 정지관(情志觀)

한 일 룡*

사상의학은 「내경」을 근원으로 하고 장중경의 「상한론」에서 계발을 받고 또한 역대 중조 의학가들의 학술사상을 참고하여 조선 민족의 의학실천과 결부한 독특한 이론 체계를 가진 전통의학이다. 조선 의학가 이제마선생은 「령추, 통천편」 오태인론에 근거하여 태소음양을 섭취하고 음양화평인을 제거하여 사람을 태소음양 사상인으로 나누어 4종인의 체질에 따라 변상 변증론치 하였다. 아래에 정서, 성질이 사상의학 중에서의 작용을 논술 하려 한다.

1. 병인방면

사상의학의 창시자 이제마선생은 그의 「동의수세보원」에서 “옛의사들은 심의 애오소욕(愛惡所欲)을 모르고 회노애락(喜怒哀樂)이 편향하면 병을 일으키는 것도 모르고 비위수곡(脾胃水谷) 풍한서습(風寒暑濕)이 병을 일으키는 것만 알고 있다. 또 “유년 7~8세전 문견불급(聞見未及)하므로 회노애락이 부조(不調)하여 병을 일으킨다……”라고 하였다. 또한 “태양인은 애극불제(哀極不濟)하면 쉽게 분노하고 소양인 노극불승(怒極不勝)하면 비애동중(悲哀動中)이라…… 이와같이 동하는 자는 칼로 장(臟)을 베듯이 한번 대동하면 10년 난복(難復)이요

사생수요(死生壽夭)의 관건이라. 반드시 엄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제마선생은 병인학에서 사음(四淫) 음식등 외인외에 특별히 애오소욕(愛惡所慾) 회노애락(喜怒哀樂)등 정서, 심리인소가 장부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중시하였다.

2. 생리병리방면

사상의학은 부동한 형태 및 성질, 정서에 따라 사람을 태양, 소양, 태음, 소음 등 4종 부동한 상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부동한 상인 사람은 부동한 성질, 정서를 고유(固有)하고 있으며 질병상태라 하여도 부동한 병리 표현을 나타낸다.

례하면 태양인은 폭노심애(暴怒深哀)하고 앞으로 나가려 하고 물러서려 하지 않고 태음인은 낭락심희(浪樂深喜)하고 움직이지 않으려하며 동하는것을 싫어하며 소음인은 낭희심락(浪喜深樂)하고 사람과 사귀려 하지만 뛰어나려 하지 않고 소양인은 폭애심노(暴哀深怒)하고 주먹을 쓰려 하며 계획 아래 처리하려 하지 않는 등 성질이 있다. 때문에 이제마선생은 “무욕(無欲)하여 마음을 안정시키고 “중절”(中節)하여 마음을 가라 앉히라 하였다. 회노애락미발(喜怒哀樂未發)은 “중”(中)이고 발작하여도

* 연변의학원 조선의학계

중절하는 자는 “화”(和)라 하였다. 그러므로 태양인은 이기려 해도 제멋대로 하지 말고 소음인은 이기려 하지 않아도 과분하게 편안하지 말아야 하며 소양인은 호승(好勝)하려 해도 편사(偏私)하지 말아야 하며 태음인은 호수(好守)하여도 물욕(物欲)하지 말아야 만이 장부가 “항”(恒), “정”(靜)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정서를 유지하며 무병할 수 있다. “태양인이 애심심착(哀心深着)하면 표기를 손상하고 노심폭발(怒心暴發)하면 이기를 손상하고 소음인은 즐거우면 눈과 려기(膂氣)를 손상하고 기쁘면 비와 위기를 손상한다. 태음인은 기쁘면 귀와 뇌추기(腦顛氣)를 손상하고 과분이 즐거워 하면 비, 위완기(脾, 胃脘氣)를 손상한다. 소양인은 노여우면 입과 방광기를 손상하고 슬프면 신, 대장기를 손상한다”고 하였다. 부동한 상은 사람들의 부동한 내인을 반영하므로 부동한 이감병(易感病)을 발생한다. 때문에 같지 않은 증상이 나타난다. 태양, 소양인은 양이 많고 음이 적으므로 성질이 급하고 조동하며 행동이 경솔하므로 열증이 많다. 태음, 소음인은 음이 많고 양이 적으므로 성질이 침착하고 행동이 늦으므로 한증이 많다.

3. 예방 보건방면

사상의학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장수를 보장하는 방면에서 정신 심리인소의 작용을 매우 강조하였다. 이제마선생은 “태양인은 노여움과 슬픔을 방

비하여야 하며 소양인은 슬픔과 노여움을 방지하여야 하고 태음인은 즐거움과 기쁨을 삼가하고 소음인은 기쁨과 즐거움을 삼가하여야만 장수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사람의 성질, 심리는 질병을 방지하고 건강을 보장하는 예방의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며 또한 성질과 심리변화는 교양을 통하여 능히 개변 시킬수 있으며 기쁨,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등 정서는 조화(調和)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양생 장수(養生, 長壽)방면에서 “간약(簡約)한 자, 근검(勤)한 자, 경계(警戒)한 자, 문견(聞見)한 자는 장수한다. 교오하는 자, 게으른 자, 성질이 급한 자, 탐욕자는 감수한다…… 검검(謹謹)한자는 장수하고 허탐(虛貪)한자는 반드시 일찍 죽는다”라고 하였다.

심리방면에서 호현선락(好賢善樂)을 제창하였는데 “덕이 높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시기하는 자는 다병(多病)하고 덕이 있고 즐거워하는 자는 천하의 제일좋은 약이다”라고 하였다.

총적으로 사상의학은 사람의 정서 성질을 매우 중시한다. 체질분형으로부터 예방 보건에 이르기까지 전부 과정에서 시종 이 정신이 들어있다.